

# 인간활동에 해양생물 1550종 멸종 위기

자연보전연 멸종위기종 적색목록 전체 9%...41%는 기후변화 영향 호주 전복 종 폭염으로 99% 폐사 카리브해 산호 서식지 80% 감소

기후변화에서 오염에 이르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해양 생물의 9%인 155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멸종 위협을 받는 해양 생물의 최소 41%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로이터 통신과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최신 멸종위기종 적색목록(Red List)을 인용,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분석한 1만7903종의 해양 동식물 가운데 1550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이그 힐튼-테일러 IUCN 적색목록 책임자는 "물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 볼 수 없

어 생물종 분석은 수중 상태를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며 "이 결과는 우리가 해양 생물에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분석된 종들은 널리 퍼져 있어서 멸종 위협을 받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멸종에 직면한 해양 생물 종 비율은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적색목록에는 '바다소'로 널리 알려진 초식성 해양 포유동물인 듀공이 멸종 위기종으로 추가됐다. 듀공 서식지인 동아프리카의 개체는 250마리 이하로 감소했으며,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의 개체는 900마리 이하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IUCN은 동아프리카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어구에 의한 포획이, 뉴칼레도니아에서는 밀렵이 듀공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두 지역에서 모두 선박에 의한 부상 피해도 크다고 밝혔다.

또 동아프리카에서 석유-가스 탐사와 생산, 해저 저인망, 화학 오염, 무허가 해안 개발 등으로 듀공의 먹이가 되는 해초가 파괴되고 있고, 뉴칼레도니아에서도 니켈 채굴과 해안 개발로 해초가 줄

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류 일부도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IUCN은 가장 비싼 해산물 중 하나로 팔리고 있는 전복류가 밀렵과 지속 불가능한 어업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조사대상 54종 중 20종(44%)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해양 폭염도 해양 생물 종의 폐사 원인으로 꼽혔다. 호주 서부 해안에 서식하는 전복 중(Roe's abalones)은 극심한 해양 폭염으로 99%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리브해에 서식하는 중요석을 담은 산호인 기둥산호(pillar coral)는 1990년대 이후 서식지가 80% 이상 감소해 이번 적색목록에서 멸종 위기 단계가 '취약'(vulnerable)에서 '위급'(critically endangered)으로 상향됐다.

어맨다 빈센트 IUCN 해양생물 보존 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생물 종이 처한 끔찍한 상태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는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스키 타는 산타 복장의 자선행사 참가자들 11일(현지시간) 미국 메인주 뉴리의 선데이 리버 스키리조트에서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연례 자선행사 '스키런'(Ski Run)으로, 300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 美 인류 달 복귀 프로젝트 1단계 성공

무인 우주선 '오리온' 귀환

미국의 인류 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가 첫 단추를 꿴데 성공했다.

12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11일(현지시간) 달 궤도 비행 을 마치고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인근 태평양 양에 착수(着水)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미국은 유인 달 탐사 '아폴로' 계획 이후 반세기만의 인류 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에서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

오리온의 귀환은 지난달 16일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이후 25일 만으로,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 11일 달 표면에 도착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에 이뤄졌다.

오리온은 이날 오후 32배인 시속 2만5000 마일(약 4만km)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했다.

새로운 첨단 방열판을 장착한 이 우주선은 대기권 돌파 시 태양표면 온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섭

씨 2800도를 견뎌낸 뒤 낙하산을 펴고 해수면에 도달했다.

오리온의 대기권 진입은 이번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새 방열판이 향후 유인 비행에서 우주비행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리온은 이번 비행에서 실제 우주비행사를 본떠 인체와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진 마네킹을 태웠고, 장비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앞서 오리온은 궤도 비행 중 달 표면 80마일(약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했다.

또 비행사 탑승이 가능한 우주선으로서는 현재까지 지구에서 가장 원거리 비행인 26만8000 마일(43만2000km) 지점 도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NASA는 아르테미스 I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달 궤도 유인 비행(아르테미스 II)에 도전한다. 2025년에는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III 임무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대체불가토큰 사기 홍보

저스틴 비버·마돈나 등

유명 연예인 무더기 피소

저스틴 비버와 마돈나 등 미국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대체불가토큰(NFT) 사기 판매를 홍보해줬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트 등에 따르면 한때 투자 광풍을 일으킨 NFT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을 구매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 2명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유명인은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마돈나를 비롯해 인기 토크쇼 진행자 지미 팰런, 배우 귀네스 펠트로와 케빈 하트, 농구 스타 스테픈 커리, 올해 은퇴한 '데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 인기 가수 포스트 말론과 더 위켄드 등이다.

원고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명인들이 블록체인 기업 유가랩스가 발행한 BAYC의 사기 판매를 홍보해줬다며 이들은 자신의 팬들이 높은 가격에 NFT를 구매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유가랩스는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NFT 판매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루한 원숭이' NFT는 올해 한때 가격이 수십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현재 가격은 8만6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바다에 뿌려지는 장제민 전 중국 주석 유해 11일(현지시간) 중국 양쯔강 어귀 바다에 장제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유해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바다에 뿌려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고인의 부인 왕예핑을 비롯한 친인척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멕시코 규모 6.0 지진, 과테말라는 화산 폭발

국경을 맞댄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지진과 화산 폭발로 요동쳤다.

11일(현지시간) 멕시코 국립지진청·과테말라 기상청·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레포르마·라 프렌사리브레 등 양국 일간지 등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 31분께 멕시코 중부 계곡으로 주 엘티쿠이 서쪽 3km 지점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멕시코시티 등 중서부에서도 강하게 흔들림이 감지됐다. 고층 건물은 10초 이상 진동하며, 철골 구조에서 나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시민들은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진경보 활성화 후 각종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우려할 만한 손실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약 30여분 뒤인 이날 오전 9시 3분께 과테말라 코마파 동북동 방향 3km 지점에서 규모 5.2(USGS 발표) 지진이 측정됐다.

진앙은 북위 14.128도, 서경 89.881도이며, 발생 깊이는 191.7km다. 정부 당국은 "별다른 피해는 없다"며 계속해서 진원 주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인력난 시달리는 독일, 정년 67세로 가나

솔츠 총리 "조기 퇴직자 줄일 것"

독일 경제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독일 총리가 퇴직연령인 67세보다 3~4년 앞서 은퇴하는 조기 퇴직자의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솔츠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독일 풍경매디에그롭과 프랑스 매제 웨스트 프랑스(Ouest France)와 인터뷰에서 "퇴직 연령인 67세까지 일하는 사람의 비중을 늘리는 게 관건"이라며 "이는 오늘날까지 여러 사람에게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여성 비중을 늘릴 여력이 있다

고 평가하면서 이를 위해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에서 전일제 돌봄 제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에서 퇴직 연령인 67세 이전에 퇴직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미 63세나 64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이다. 동시에 독일 경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솔츠 총리는 "젊은 계층에 입직을 위한 가능성을 개선하고, 직업 교육과 훈련에 투자한다면 일부는 노동시장에 불잡을 수 있다"면서 "이에 더해 우리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이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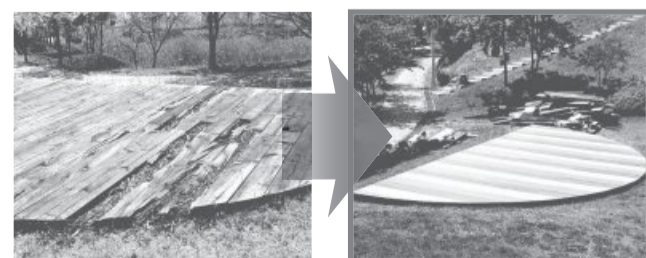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